

교만은 멸망에 앞서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서 간다(잠언 16:18)

테드 힐드브란트의 속담 이야기

빅터 그랜트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두려움에 찬 어조로 말하는 그런 관리자였다. 키가 크고, 옷차림은 깔끔했으며, 자만심이 짙었다. 빅터는 친절이나 뛰어난 재주가 아니라, 지배력, 타인에 대한 비꼬는 폼하, 그리고 끝없는 자존심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재치, 리더십, 비전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종종 사무실을 활보하며 신하들을 살피는 군주처럼 거만하게 행동했고, 마치 호의인 양 비판을 퍼붓고 자신의 의견이 아닌 아이디어는 묵살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언행을 두려워했고, 그의 잔인하고 비꼬는 말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유망한 젊은 인재들이 빅터의 숨막히고 답답한 통치에 신물이 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에블린 하트도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겸손하고, 꾸준하고,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준비와 인내심의 힘을 믿는 여성이었습니다. 빅터는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기계 속 하찮은 톱니바퀴 정도로 여기며 간과했지만, 에블린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혁신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재능은 동료들의 존경을 쉽게 얻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중요한 기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유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연구 지원금이었습니다. 당연히 빅터는 자신이 그 제안을 주도할 책임자라고 선언하며, 그런 일을 할 만한 비전이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는 지쳤지만 그에게 도전하고 싶지 않아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제안을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빅터가 비웃었다. "그들이 시도하게 두라고." 그는 거만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망신만 당할 뿐이야."

동료들의 격려에 힘입어 에블린은 조용히 팀을 꾸렸습니다. 밤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일하며 통찰력을 얻고, 전략을 세우고, 고객의 말하지 않은 니즈를 예측했습니다. 빅터의 계획은 대담하지만 피상적이고, 허세와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의존하는 반면, 에블린의 계획은 사려 깊고 혁신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빅터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제스처, 거창한 약속,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에 대한 거만한 자랑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사회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블린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며, 과장된 연기 없이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험과 돌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으며, 고객의 업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며, 청중을 감탄에 잠기게 했다.

그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정중한 박수는 없었고, 오직 그녀의 승리에 대한 놀랍고도 확실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졌습니다. 계약은 에블린의 지휘 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빅터의 몰락은 빠르고도 완벽했다. 오랫동안 그의 방패였던 그의 자존심은 주변의 떠오르는 재능과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약점을 보지 못하게 했다. 권위를 박탈당한 그는 강등되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에블린은 자랑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에만 매진하며, 진정한 힘은 오만함이 아니라, 세심한 경청과 꾸준하고 꾸준한 탁월함을 통해 겸손한 지혜로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몰락의 앞잡이" 라는 옛 속담의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